

# 출판사 가는 길, 멀기만하다

## 출판계 진출 턱없이 적어... 전공 '특화'의 노력 병행해야

전국 11개 전문대학 출판과(인쇄출판과·편집디자인과·전자출판과 포함)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은 한해 1천명선. 1만개를 헤아리는 출판사 숫자에 건주면 모자란 듯하지만, 출판과 졸업생이 출판업계로 나아가는 길은 순탄치가 않다.

출판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취업 양상을 나타내는데, 관련 업계로의 진출비용은 전문대 평균치보다 낮은 편이다.

### 업계의 인식변화가 필요

신구전문대학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판계 취업률을 자랑한다. 취업자의 75%가 출판을 첫 직업으로 삼는다. 수도권에 있고 출판사를 재단으로 둔 입지조건에 힘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않다. 졸업생의 대부분은 넓은 의미의 출판이랄 수 있는 언론 분야와 작은 규모의 출판사로 진출하기 때문이다. 전문신문과 전문잡지, 그리고 소규모 출판

사 정도가 출판과 졸업생을 반길 뿐, 이른바 메이저 출판사와 중앙 언론으로 가는 길은 굳게 닫혀 있다.

올해 출판과를 졸업한 임정은(도서출판 디딤 편집부)씨는 국내 유수의 신문사 출판부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출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신문사는 전문대 출신을 임시직으로만 채용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단행본 편집과 한 기업체의 사보를 편집하는 일을 맡고 있다. "출판과의 교육과정이 출판 실무에 거의 적용된다"고 말하는 임정은씨는 업계가 출판과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기를 당부했다.

93년부터 40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온 서울전문대학의 출판계 취업률은 30%를 조금 넘는다. 학과 정원의 반은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취업률은 큰 의미가 없다. 지방대학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서 대체로 20%선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경인여자전문대학 전자출



출판시장의 현장감각을 읽는 출판의 상상력이 요구된다. 사진은 신구전문대의 교육과정.

판디자인과의 '선전'은 의외의 현상이다. 전자편집디자인을 양성하는 이 과 졸업생의 진출 분야는 다양하다. 출판사·잡지사·신문사·일반 기업체 디자인실·디자인 전문회사·방송국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그래픽

을 활용하는 분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실제로도 출판 편집디자인을 하는 경우는 전체 졸업생의 3분의 1 수준이고, 나머지는 멀티미디어 쪽으로 나간다. 도서출판 두레 시대에서 매킨토시 편집을 하는 이은희씨는 일찌감치 출판으로 방향을 잡은 경우. "원했던 일이고, 적성에도 맞는다"고 말한다. 처우도 만족한 편이고, 학원 또는 관련학과 편입학 등을 통해 나날이 새로워지는 기술 발달에 적응할 생각이다. 반면 LG미디어 멀티미디어 프로듀서 인영실씨는 멀티미디어 진로를 정한 경우. 멀티미디어에 관심이 많아서지만 출판계의 '현실'도 작용했다.

### 출판계 현실은 냉정

전문대 출판과 졸업자에 대한 출판계의 현실은 냉정하다. 전문대가 4년제 대학보다 취업이 잘된다는 말도 출판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구전문대를 나온 권혁선(기독신보)씨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학교를 다니며 출판사에서 업무를 익힌 경력도 있는 터라 국내 굴지의 단행본 출판사인 K사에 입사원서를 냈다. 결국 그 원서는 되돌아오고 말았는데, 함께 원서를 낸 동료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 그래도 "출판 분야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서울전문대 출판과는 1천곳의 출판사에 취업협조 공문을 띄운 적이 있다. 회신율이 저조했을 뿐더러 그나마 학생들에게 심한

성과를 출판활동에 활용하며, 출판학계·교육계는 출판전문인을 배출, 출판계의 지원에 응답한다. 출판계는 출판학과 출신을 채용하도록 한다. 적절한 급여체계를 확립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한다. 대학당국의 인력수요 확산에 의한 학과설치 관심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교육성과 측정의 표준화와 우수인력의 출판계 유치방안으로 교정능력과 전산편집 능력의 측정 및 자격증을 수여하여 채용의 객관성을 확보, 우수인력 유치의 기회를 확대한다. 출판인력 저변확대의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부터 실시, 작문교육의 일환으로 편집·교정교육을 강화, 독서교육(현 고등학교 교육과정), 매체이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출판계는 출판학과 교수의 초빙으로 새로운 출판이론, 출판기술, 출판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현장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출판 관련학과는 출판현장의 전문가를 초빙, 현장성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 강화한다.

### 나의 의견

## 현장 실습교육 방안 강구해야

### 출판학 연구에 효율적인 지원을

민병덕 · 혜전전문대 출판학과 교수

출판은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나 다가오는 창조화사회에서 더욱 출판선택·출판제작·출판분배 등 출판의 업무적 기능과 보도·지도·교육·오락·홍보 등 출판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의 생성, 보존, 전달의 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출판교육은 앞으로 더욱 강조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출판교육은 교육목표·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활동·교육평가 등 교육내용에서 이러한 출판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출판선택 기능을 수행하려면 기술적 능력과 고등정신능력이 요구되므로 현행 전문대학 수학년한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종 1개년 또는 1학기는 현장적용교육, 인턴제 교육방법이 효율적이다.

출판제작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이용 기술이 숙달되어야 하므로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과 실습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출판분배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 인터넷 활용방법 등의 숙달과 출판정보의 신속한 처리 등 현장적용실습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성과의 현장적응을 위한 산학협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 관련 협회 등에서 중개 알선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타업종은 활발히 실시중이다).

출판계는 출판학계의 연구를 지원하여 그

**전국에 있는 11개 전문대학**  
**출판과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은**  
**한해 1천명선. 이들을 출판계가**  
**수용하려는 의지는 박약해 보인다.**  
**우선 출판사와 출판과의**  
**신뢰회복이 이뤄진 다음,**  
**법적·제도적 문제의 개선이**  
**따라야 한다. 출판업이 구조적으로**  
**성숙되고,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자괴감을 느끼게 만든 영세 출판사가 주류를 차지했다. 이직률도 높다. “초봉과 보수 체계는 4년제 졸업자보다 낮은 반면 일은 두배로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출판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출판과와 출판업계 사이의 불협화음을 극복하는 일은 먼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에서 찾아야 할 듯. 신규전문대가 업체인사 300여명에게 의뢰한 출판과의 기여도 조사에서 60% 이상이 불만족을 보인 반면, 교수들은 만족도의 비율이 높았다. 면접 불 기회조차 안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뚜렷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임현주(서일전문대 조교)씨는 말한다.

다음은 능동적인 교육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걸림돌의 개선. 출판사는 서울에 76.6%가 몰려 있는데 출판과는 단 한곳 뿐이다. 정부의 수도권 인문계학과 증설 불허 방침에 따라 출판과가 공업계로 분류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학생들을 이끌 구실이나 자격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창경(신구전문대)교수는 자격증 제도를 제안한다. 전문대 과정에서 자격증을 딸 수 없다면 동기부여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컴퓨터 편집과 교정 등의 분야에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4년제 대학의 출판학과 설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제도적 문제. 전문대 졸업자를 기피하는 첫째 이유로 출판인들은 ‘인문적 소양’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 점은 출판과

학생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서일전문대 《책을 만드는 사람들》 특집팀의 조사에 의하면 출판과 학생들도 출판 전문인의 양성에 2년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48.8%가 3년을, 41.5%는 4년을 적당한 교육기간으로 응답했다.

과행적인 상황을 돌파하려는 출판과 내부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컴퓨터를 통해 편집 디자인을 ‘특화’ 시킨 경인여전이 모범적이다. 이 학교의 윤세민 교수는 “다른 학교들도 결국 이러한 방향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대구전문대학이 출판인쇄과에서 전자출판과로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 “종이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발상법을 살리면서 출판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김현식교수는 말한다.

출판과와 출판사의 산학협동이 이뤄지려면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출판업이 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숙되고, 학벌보다는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숙제를 풀지 않고는 4년제 출신의 역류와 학원에서 기능을 연마한 인력의 틈바구니에서 전문대학 출판과 졸업생이 설 자리는 없다.

—최성일 기자

**다국어맥 편집서비스**  
 옥편, 다국어사전, 벽지 관련 서적



한글판 Quark XPress에서 작업한 화일을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기타 다국어로 4도분할 출력 가능한 Multi-Language One Step System 탄생— 한글·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을 한글판 Quark XPress 1개 화일내에서 작업하여 분권출력할 수 있는 MLOS System은 시간, 경제적인 측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어 인쇄매체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을 100퍼센트 만족시킬 것입니다.

**멀티피아** T. 267-5269 F. 278-6441  
 중구인현2가192-30 신성B/D405

## 두 번의 뿌듯함

처음에는 교육, 니중에는 취업에 대해  
 만족해하는 수료생들을 보면서  
 한 번,  
 수료생들의 일순씨에  
 만족해하는 취업의력처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이 두 번의 뿌듯함으로  
 서울편집학원은  
 전통을 이어갑니다.

### 능력있는 편집인·기자가 되고 싶으시구요?

첫아이를 가진 엄마가  
 태교를 하듯  
 정성을 다하여  
 지도합니다.

###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시구요?

첫아이를 시집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구분	정규과정	주말정규과정	DTP특강과정
강의기간	5개월	5개월	8주
강의시간	오전반10:00-13:00 오후반14:00-17:00 야간반19:00-22:00	토요일15:00-21:00 일요일10:00-16:00	오전반10:00-13:00 오후반14:00-17:00 야간반19:00-22:00
정원	30명	20명	20명
강의요일	월·화·목·금	토·일	월~금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매체협회 지정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 추천 교육기관

**서울편집원스쿨**  
 문의(대)672-1841~2 FAX 637-0441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방향 100m  
 24시간 자동응답내선 704-4450(100★)